

영어인사말에 비한 조선어인사말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주 광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어는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어가 있지만 우리 말처럼 표현이 풍부한 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세상에 우리 말처럼 표현이 풍부한 말은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인사말이 다양하고 섬세한 언어는 없다.

사람들사이에 인사말로 자주 쓰는 표현들은 해당 언어발전의 역사적과정에 형성되고 언어관습으로 굳어진 언어행위의 기초표현으로서 회화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언어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먼저 인사를 나눈 다음 기본대화를 시작하며 이때 사용되는 인사말들은 대화상대방과 정황에 따라 언어마다 다양하게 표현된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아래사람들은 웃사람들을 레절있게 대하면서 서로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웃사람들은 아래사람들의 인사에 답례를 해주고 서로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에도 친절하게 레의를 표시하는 우수한 풍습을 가지고있다.

인사말들은 모든 나라에서 다 공통적인것이 아니며 특히 풍부하고 섬세한 감정과 레의범절관계가 뚜렷한 조선말을 영어로 원만히 표현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인사말들을 조선어와 영어의 대비속에서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두 민족의 사회력사적 및 자연지리적배경, 언어관습, 문화적풍습, 사회성원들사이의 인간관계 등이 서로 다른데로부터 차이점이 많으며 우리 말의 풍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것을 알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조선어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관계 및 대화심리적관계에 따라 인사말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영어인사말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사이에는 나이, 성별, 사회적지위, 지식정도, 직업, 혈연관계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사회적관계가 맺어지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늙은이와 젊은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스승과 제자, 상급과 하급, 서로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이 등 여러가지 관계로 나타난다.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인간생활 즉 사회생활에는 사람들사이의 사회적관계에서 지켜야 할 일정한 사회적규범이 작용하며 그 표현의 하나가 바로 언어레절이다.

한편 대화환경에서 대화자들사이에는 일정한 심리적관계도 이루어지게 된다. 대화자들사이의 심리적관계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관점과 태도, 감정정서적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대화과정에 사람들은 같은 대상이라 하여도 경우에 따라 보다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보통으로 대하기도 하며 무뚝뚝하게 대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대화과정에 일정한 사회적관계에 따르는 태도와 관점, 감정정서만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대화당시의 심리적관계에 따라서도 언어적표현이 달라지며 인사말에서도 역시 그러하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어인사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는 상대방이 웃사람일 때, 《안녕하오?》는 상대방이 동급일 때, 《안녕하니?》는 상대방이 아래 사람일 때 쓰이는 인사말이라는것이 명확히 안겨온다.

그러나 영어인사말에서는 여기에 대응되는 인사말이 《Hello?》, 《Hey?》, 《Hi?》 등이 있지만 우리 인사말에서처럼 상하관계와 인간관계가 잘 안겨오지 않는다.

아침에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눌 때의 조선어인사말을 보아도 웃 사람에게는 《안녕하십니까?》는 물론 《밤새 편안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셨군요.》, 《아침을 잡수셨습니까?》, 아래 사람에게는 《오늘 아침에는 빨리 깨났구나.》, 《아침을 먹었니?》 등 상하 및 인간호상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만 영어로는 《Good morning?》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만일 조선어인사말인 《아침을 먹었니?》에 대응시켜 영어로 《Have you had breakfast?》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사말이 아니라 정보를 요구하는 물음문으로 된다.

다음으로 조선어인사말은 그 표현이 때와 장소, 정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내지만 영어인사말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서로 만날 때의 인사말이 아주 풍부하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날 때와 서로 잘 아는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날 때, 아침에 처음 만날 때와 아침에 만났는데 오후에 또다시 만날 때 하는 인사말들이 모두 다르게 표현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처음 보게 되는 사람에게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가지 좀 물어시다.》 등으로 자기의 인사를 나타낸다.

오래간만에 만날 때에는 《참 오래간만입니다.》, 《어디에 가셨습니까?》, 《꽤 좋아졌군요.》 등으로 인사를 나타낸다. 그리고 비행기나 기차로 여행을 한 사람들을 맞이할 때에는 《먼 여행길에 수고하셨습니다.》, 《몹시 피곤하시겠습니까.》라고 인사말을 한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 아침에 처음 만날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셨군요.》 등으로 인사를 표현하며 아침에 헤어졌다가 오후에 다시 만날 때에는 《점심식사를 했는가요?》, 《어데 가십니까?》 등으로 인사를 나타낸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날 때에는 《How do you do?》, 《Hello.》, 《Hi.》로, 오후에는 《Good afternoon.》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다.

조선어에서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물음문이지만 억양만 달리하면 서로 마주오고있는 두 대화자들사이의 인사말로도 될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말에는 정확한 정보는 필요없고 그저 《예, 어디 좀...》 또는 《잠시 다녀올데가 있어서...》라는 인사말이 뒤따른다. 그러나 영어로는 이 표현이 《Where are you going?》 또는 《Where are you off to?》 등인데 이것은 정보를 요구하는 물음문일뿐 인사말은 아니다.

또한 서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매우 풍부하다.

조선어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해주세요.》, 《편히 주무십시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일찍 돌아오세요.》, 《너무 오래 있지 말아라.》, 《또 만납시다.》, 《잘 가시오.》, 《왔지 말라구.》, 《조심히 가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옷을 든든히 껴입으십시오.》 등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영어에는 《Good bye.》, 《Good night.》, 《See you again.》, 《So long.》 등 상대적으로 제한된 표현들만이 쓰인다.

조선어인사말에서 헤어질 때 웃사람들에게 아래사람들이 많이 쓰는 《조심히 가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잘 다녀가십시오.》, 《옷을 든든히 껴입으십시오.》를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여 영국인들에게 《Go with care.》, 《Go slowly.》, 《Put more clothes on.》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마치 어린애처럼 여긴다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조선어인사말에서는 헤어질 때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밥먹고 오겠습니다.》, 《가져다주고 오겠습니다.》 등과 같이 《오겠다》는 말을 덧붙여 많이 쓴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축하를 할 때에도 조선어인사말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간단하게 표현되지만 영어인사말은 그렇지 못하다.

그 누구의 성과를 축하하거나 칭찬해줄 때 《축하합니다.》, 《영웅이야.》, 《제일이요.》, 《놀랍군요.》, 《혼났지?》, 《참 기쁘시겠습니다.》, 《으쓱하겠네.》, 《부럽구만.》, 《용쿠만.》 등으로 표현되는 인사말들과 물건을 많이 사들고 오는 서로 아는 사이의 사람을 만났을 때 《뭘 많이도 샀군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봅니다.》 등은 영어로는 그에 대응되는 간단한 인사말들이 부족하고 격식적인 《Congratulate you on your success.》와 같은 표현으로밖에 달리 나타내기 힘들다.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우와 같은 조선어인사말들을 대응시켜 전달하자면 부득이 문장이 길어지면서 보다 더 전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조선어인사말은 영어인사말에 비하여 친분관계가 매우 섬세하게 나타난다.

오래간만에 거리에서 만난 한 남자친구가 상대방에게 하는 인사말인 《이제 누구요?》와 녀동무가 자기의 가까운 남동무에게 《아니, 영철동무가 아니세요?》, 《그새 보이지 않더니 어디 가셨어요?》 등은 반갑다는 자기의 감정을 허물없이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인사말이지만 영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과 같은 표현으로밖에 달리 인사를 나타내기 힘들다.

조선어에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에 비길 정도로 널리 쓰이는 인사말인 《수고하십니다.》가 있다.

이 인사말은 일하고있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이다. 여기에서 《일》의 개념에 포괄되는 내용은 여러가지이다. 즉 여러가지 직종이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하는 각이한 모든 행동을 《일》로 볼 때 이러한 행동을 하고있는 사람에게 쓸수 있는 인사말이다. 그러나 이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의 경우와 달리 응답인사로 쓰이지 않는다. 《수고하십니다.》가 사람을 만났을 때의 보통인사말로 쓰이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등으로 될수 있다. 만일 조선어인사말 《수고하십니다.》를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여 《Much trouble.》 혹은 《You are doing a lot of work.》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어인사말로 되지 않는다. 《수고하십니다.》가 보통인사말로 될 때 그것을 영어로 옮긴다면 해당한 시간에 따라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으로 될수 있다. 《어서 오십시오.》, 《나오셨군요.》, 《늦으셨군요.》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 《You've come out here.》, 《Are you coming now?》, 《You're late today.》로 한다면 이것은 인사말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말해주는 알림문이나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물음문으로 된다.

조선어인사말이 영어인사말에 비하여 그 표현이 풍부한것은 조선어가 나이관계에 따라 말차림을 나타내는 뉘앙스와 존경만을 따로 나타내는 존경토 《시》가 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풍부한 조선어인사말을 영어로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 학생들의 외국어실천능력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